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우크라이나

Ukraine

2019년 7월 11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604천 km ² 	인구 41.87백 만명 (2018)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1,246억 달러 (2018) 	1인당GDP 2,963 달러 (2018) 	통화단위 Hryvnya(HRN) 	환율(\$기준) 27.20 (2018 평균) 

-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음.
- 우라늄, 석탄, 망간,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보리, 옥수수, 밀, 콩 등의 농업 생산이 활발하며,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4,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2019년 4월 대선에서 기존의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음.
- 대외적으로는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크림 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2. 10 수교 (북한과는 1992. 1. 9)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2), 항공협정('03), 세관협력협정('04),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6), 무역협정('97, 개정 '08), 원자력협력협정('07), 문화협력협정('09), 사증면제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222,247	258,560	341,333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입	472,357	539,313	386,688	식물성물질, 철광, 합금철선철 및 고철

해외직접투자현황(2019.3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39건, 302,524천 달러

우리은행과의 관계

(2019/07/04 현재)

구분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액	대출잔액
수은대출(천달러)	1,230,320	1,216,094		71,050
경협기금(백만원)	0	0		0

정량평가 경제지표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우크라이나
Ukraine

종전 평가일 : 2018.03.23

분야	평가요소	2014	2015	2016	2017	2018	
I. 국내경제 (50%)	1인당 GDP(달러)	3,054	2,125	2,200	2,656	2,963	
	소비자물가상승률(%)	12.1	48.7	13.9	14.4	11.0	
	재정수지/GDP(%)	-4.5	-1.2	-2.2	-2.2	-2.3	
	GDP 규모 (억 달러)	1,306	905	933	1,121	1,246	
	실질GDP 성장률(%)	-6.6	-9.8	2.4	2.5	3.3	
	국내총투자/GDP(%)	13.4	15.9	21.7	20.7	23.5	
II. 국제경제 (50%)	대외거래 (25%)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1.0	2.7	2.5	2.7	3.0
		경상수지/GDP(%)	-3.5	1.8	-1.4	-2.2	-3.4
		총수출증가율(%)	-20.7	-24.4	2.3	15.1	12.3
		총수출/GDP(%)	54.3	59.3	58.8	56.4	57.0
		총외채잔액/총수출(%)	181.9	226.2	206.8	184.7	169.5
	외채상환능력 (25%)	D.S.R.(%)	45.5	62.1	67.0	56.7	56.2
		총외채잔액/GDP(%)	92.0	134.1	121.7	104.1	96.6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306.6	137.5	134.7	110.0	88.5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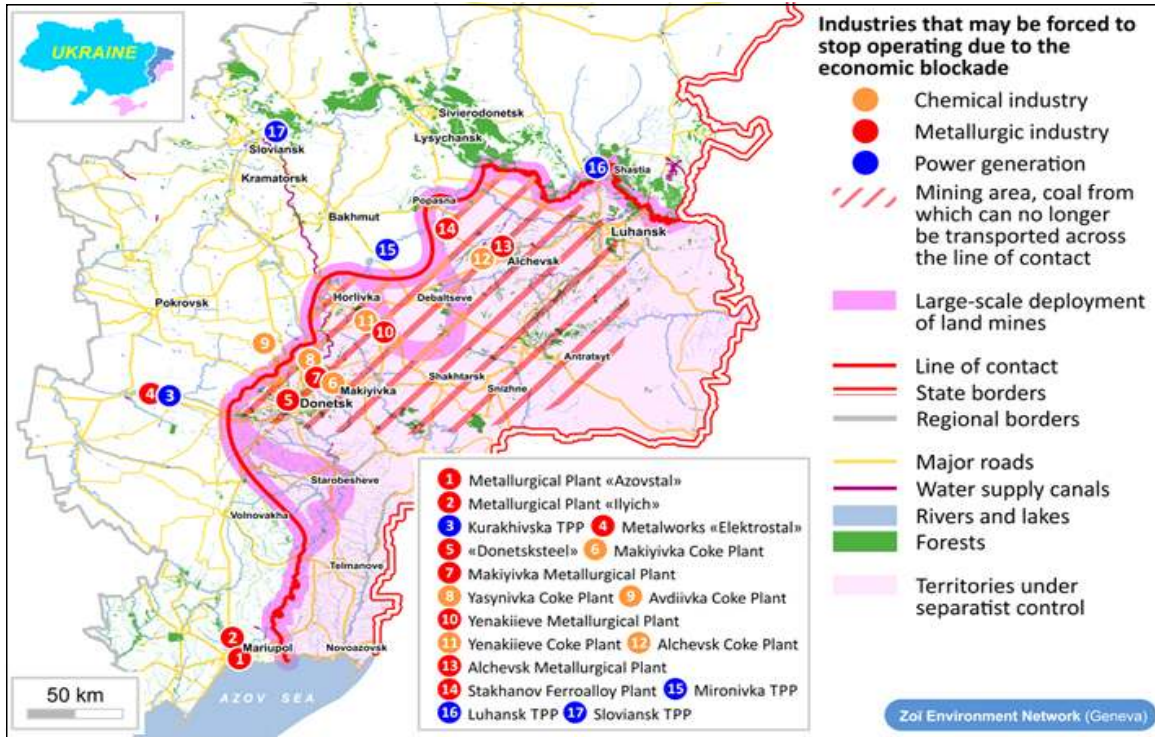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6.6	-9.8	2.4	2.5	3.3
소비자물가상승률	12.1	48.7	13.9	14.4	10.9
재정수지/GDP	-4.5	-1.2	-2.2	-2.2	-2.3

자료: IMF, EU

2016년 이후 경제성장 지속

- 2016년 이후, 2014~15년의 정치 및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극심한 경기 침체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이어서 발생한 동부 지역에서의 분쟁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는 2014~15년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극심한 침체를 겪었음.
 - 2016년 이후 동부 지역에서의 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서방의 지원과 주요 수출품인 철강 국제 가격의 상승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 총수출증가율은 2014~15년 -20%대를 기록했으나, 2017~18년에는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하였음.
 - 또한 2014년 이후 총투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 동안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은 최대의 석탄생산 지역이며, 다수의 철강공장 및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내전으로 우크라이나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지역과 주요 석탄 광산 및 철강회사, 화력발전소



자료: <https://www.trwn.org>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동부 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공공요금 이 인상되면서 2015년 48.7%까지 폭등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인 경기안정과 중앙은행의 관리정책에 따라 하락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안정에 따라 점차 하락하여 2016년 13.9%, 2017년 14.4%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10.9%를 기록함.
-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2015년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하였으며, 이후 물가 안정에 따라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2019년 6월 현재 17.5%를 기록하고 있음.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국방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지역 분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국방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8% 가량 늘어난 약 76억 달러로 전체 예산(396억 달러)의 19.2%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도 2014년 1.7%에서 2019년에는 2.7%로 증가하였음.
- 2019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연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대하여, 연금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약 59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4.9%에 달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4,596	1,616	-1,340	-2,442	-4,287
경상수지/GDP	-3.5	1.8	-1.4	-2.2	-3.4
상 품 수 지	-7,128	-3,455	-4,942	-9,663	-12,609
상 품 수 출	50,552	35,420	35,560	39,701	43,345
상 품 수 입	57,680	38,875	40,502	49,364	55,954
외 환 보 유 액	6,618	12,359	11,894	15,582	19,814
총 외 채	120,021	121,332	113,546	116,696	120,330
총외채잔액/GDP	98.8	134.1	121.7	104.1	96.6
D.S.R.	45.5	62.1	67.0	56.7	56.2

자료: IMF, EIU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우크라이나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IMF, EU,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음.
- IMF는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175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승인하였으며, 87억 달러를 지원한 이후 개혁 부진을 이유로 2017년 4월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음.
- 2018년 10월에는 향후 14개월 동안 39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23.5%의 가스 가격을 인상하고, 의회가 새로운 예산규정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14억 달러의 집행을 승인함.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8년 12월 정부의 공공부채를 GDP의 60%,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규정을 도입함.
- 세계은행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2018년 말 7.5억 달러의 금융보증을 제공하였으며, EU는 2018년 말 5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승인함.
- 정부는 부족한 외환의 확보를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기업이 외환소득의 30%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매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의 이익배당금 송금을 월 700만 유로로 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2014년 약 66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나, 국제기구들로부터의 금융지원에 따라 2017년 약 156억 달러, 2018년 약 19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미국, 2025년까지 지원 지속 계획

- 미국은 2014년 이후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우크라이나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이 자금은 반부패, 선거제도, 법 및 제도적 통치 기준 강화 등에서 유럽 기준에 부합하게 우크라이나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됨.
- 또한 민간 경제부문 지원, 에너지 안보 확보, 농업 생산 발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됨.
- 이 지원은 당초 2019년까지 기한을 두고 있었으나, 2025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금융부문 개혁, 경제의 경쟁력 강화, 민주주의 발전 등을 새로운 지원 분야로 하고 있음.

상품수입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러 교역 감소 추세

- 상품 수출이 전년도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상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3.3% 증가하였음.
- 2018년의 교역 규모(992.99억 달러)는 전년도에 비해 11.5%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3년의 1,403.4억 달러의 70%에 불과한 규모임. 2018년의 수출액은 2013년의 73.3%, 수입액은 68.9%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최대 교역국이었던 러시아와의 수출입 규모는 양국 간의 상호 제재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전체 수출대비 대러 수출 비중은 2013년의 23.4%에서 2015년에는 12.8%, 2018년에는 7.7%로 하락하였음.
- 전체 수입대비 대러 수입 비중은 2013년의 28.6%에서 2015년의 19.3%, 2018년에는 14.5%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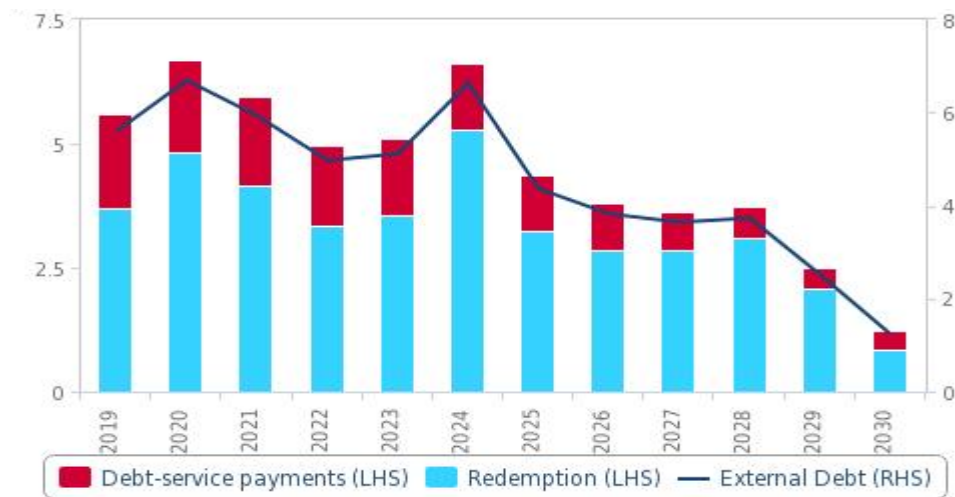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하나 개선추세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2016년 81.2%에서 2018년에는 65.2%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8년 56.4%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외채상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4년 외채상환과 환율방어를 위한 달러 매각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66.2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IMF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2017년 약 156억 달러, 2018년 약 198억 달러로 증가함.
- 우크라이나의 대외부채 상환액은 2024년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대외부채 상환스케줄

(단위: 10억 달러)



자료: 우크라이나 재무부, Fitch Solution (2019.06.03)

구조적취약성

농산물 및 철강의 수출 비중과 에너지의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시장가격 변동에 민감

- 2018년 기준 농산물 및 식료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9.3%이며, 비철금속의 수출 비중은 24.6%에 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수입에서도 에너지 부문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8%에 달함. 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에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큰 영향을 받음.

매우 낮은 국가경쟁력 지속

- 2018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쟁력 순위는 세계 140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83위로 낮은 순위에 그침.
- 세부 항목별로는 제도 부문(110위), 거시경제 안정성(131위), 금융제도(117위) 등이 특히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성장잠재력

세계 3대 곡창지대인 비옥한 토지 보유

- 국토 면적의 약70%가 농지이고, 이 가운데 약54%가 경작 가능하며, 비옥한 흑토 지대를 보유하고 있음.
- 옥수수, 해바라기씨, 밀, 보리, 콩 등의 세계적인 주요 수출국이며, 유럽, 중동, 아시아 등지로 곡물을 수출하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약 7,00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옥수수 3,550만 톤, 밀 2,450만 톤, 보리 730만 톤 등임. 생산되는 곡물 가운데 평균 60~70%를 수출하고 있음.

IT, 철강, 항공 부문의 발전 유망

- 풍부한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며 IT 부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IT 전문가의 수가 약 16~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위스 Luxoft, 미국 EPAM Systems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3,000여명 이상의 IT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덴마크 Ciklum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세계 10대 철강 수출국으로, 현재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향후 현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철강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항공 부문에서는 세계 10대 항공 산업 국가에 포함되고 자체적으로 우주선을 설계, 제작, 발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세계 다수의 국가들에서 인공위성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정책성과

부패통제기구 신설

- 정부는 세계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부패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우크라이나는 180개국 가운데 120위를 기록하여, 2017년의 130위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 10월 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of Ukraine (NABU))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4월에는 반부패법원(Anti-corruption court)을 설립하였음.

서방 국가들과 FTA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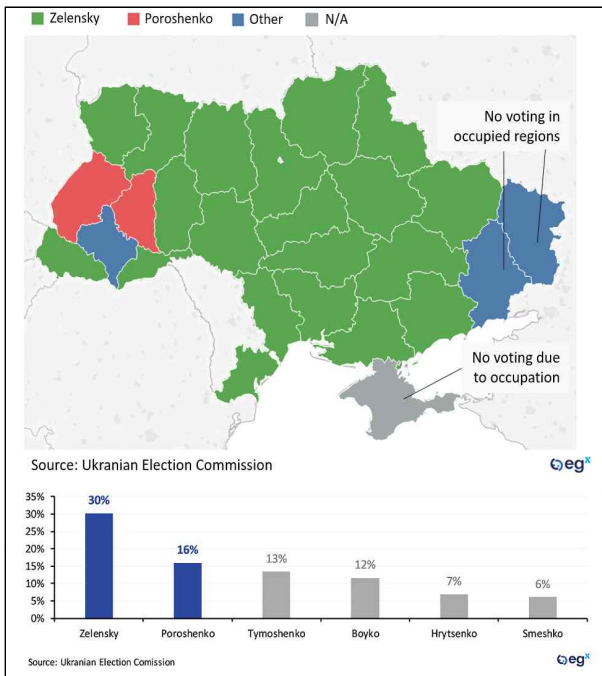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는 EU, 캐나다, 이스라엘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 4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
- 2017년 9월 EU와의 포괄적자유무역 협정(DCFTA)이 발효되었음. 우크라이나는 EU와의 교역에서 관세 인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산업표준을 EU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EU 가입을 계획하고 있음.
- 캐나다는 2017년 8월 FTA가 발효되었으며, 이스라엘과는 2019년 1월 FTA 협상에 서명함.
- 현재 터키, 세르비아 등의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정치동향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신인 젤렌스키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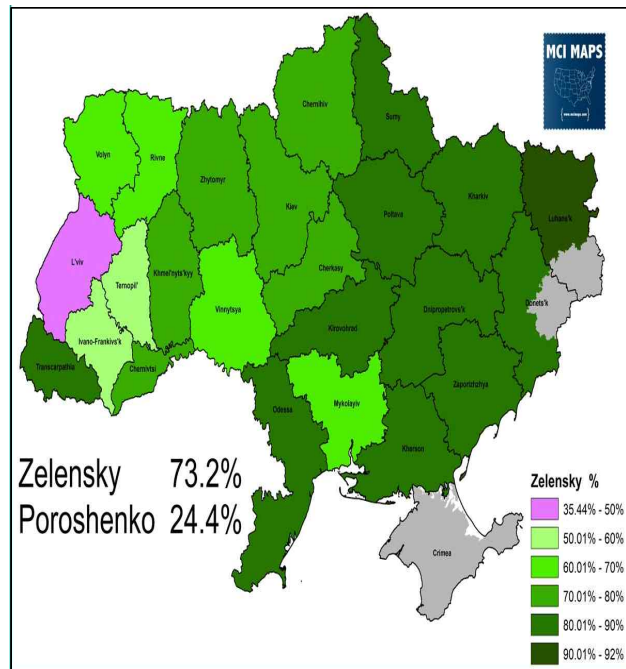
- 젤렌스키 대통령은 4월의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73.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포로셴코 전대통령은 24.4%의 득표율에 그침.
- 1차 투표에서 젤렌스키는 30.34%, 포로셴코 15.95%를 득표하였으며, 유력 후보에 포함되었던 티모셴코 전 총리는 13%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탈락하였음.
- 정치 신인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당선은 경기침체 지속과 기존 포로셴코 정부의 무능력, 부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에 따른 것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2019년 3월 31일)



자료: <https://www.eurasiagroup.net>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결과
(2019년 4월 21일)



자료: <https://twitter.com/mcimaps>

-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통해 의회 내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발표하고 7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의회 내에 대선 당시 창당된 현 여당인 '국민의 일꾼(Servant of the People)'당의 다수 의석 확보를 추진함.

사회동향

동부 지역에서의 분쟁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지속

- 2014년 이후 동부의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은 분리를 주장하는 친러시아 세력이 자치를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분리주의 세력과 군사적으로 대립하여 왔으며, 분리주의 세력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점거하고 자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음.
- 현재 양측의 군사적 대립은 소강상태이나,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광산노동자들의 시위 지속

-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광산노동자들의 시위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계속되고 있음.
- 정부의 광산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의 영향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체불 임금 지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실업률 하락 추세

- 실업률은 2017년의 9.7%에서 2018년에는 9.0%로 하락하였으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우크라이나의 실업률이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8.1%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실업률 하락은 전반적인 사회 안정과 내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친서방 정책 지속

- 젤렌스키 정부는 EU, 가입 등 기존의 친서방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하고 EU,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이전 정부의 친서방 정책을 계승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함.
- 우크라이나는 EU와 2017년 6월 무비자 협정을 발효한 바 있으며, 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이 2017년 9월 발효되었음.
- 우크라이나는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2월에는 의회에서 EU 및 나토 가입노선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음. 젤렌스키 신임 대통령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선을 재확인한바 있음.

러시아와의 대립관계 지속

-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와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호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양국의 대립관계는 2018년 11월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나포한 이후 더욱 악화되었음.
- 우크라이나는 2014년 4월부터 대러 독자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약 1,700여명의 개인과 로스네프트, 루코일 등 러시아의 주요 석유, 가스 기업 등이 포함된 750여개의 법인에 대해 제재를 취하고 있음. 2019년 4월에는 기존의 대러 수입 제한 품목에 유리제품과 전력부품을 포함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16년 1월부터 자유무역협정 폐기, 식료품 수입 금지, 러시아 통과 항공운송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2018년 11월에는 322명의 우크라이나인과 68개 기업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석탄 및 석유, 석유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 러시아는 발트해 가스관 건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함께 이 가스관의 건설에 반대해 왔음.
-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독일, 네덜란드 등의 기업들은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1,200km의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가스관의 건설로 우크라이나는 가스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게 됨.

외채상환태도

ECA에 대한 연체 지속

- 201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 승인잔액은 단기 5억 800만 달러, 중장기 13억 5,51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단기 20만 달러(전액 회수불능) 및 중장기 1억 460만 달러(회수불능 8,890만 달러 포함)가 연체 중임
- 이러한 수치는 2017년의 중장기 연체금액 1억 2,760만 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19.02)	7등급(2018.01)
Moody's	Caa1(2018.12)	Caa2(2017.08)
Fitch	B-(2017.10)	B-(2017.04)

내용을 적어주세요

- Moody's는 2018년 12월 우크라이나의 등급을 Caa2에서 Caa1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2016년 11월 이후 B-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동부 지역 분쟁의 영향으로 2014~15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16년 이후 동부 지역에서의 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서방의 지원 등을 통해 경제가 안정되고 있음.
- 정치 신인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9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73.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 지속과 기존 정치세력의 무능력, 부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에 따른 것임.
- 젤렌스키 정부는 대외적으로 친서방, 친EU 정책의 지속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대립관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IMF 등으로부터의 금융지원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채상환능력은 점차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